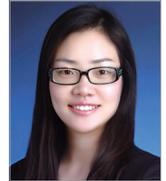


## 전통수의학에 대한 이해

# 장상학설 臟象學說

강 무 속

동물제중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모두 동서양 각각의 지역에서 발전해 온 나름의 의료기술이다. 이러한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환자의 병을 관찰하고, 진찰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방법과 형태는 많은 부분이 상이하다.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 모든 방법에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의학이 동양에 들어오면서 의학용어를 번역할 때 기존의 한의학용어를 상당부분 이용하다보니 용어가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기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오장육부에 대한 용어가 같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혼돈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한의학과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장기는 기능상에서 다른점이 있다. 오늘날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구분지어 다른 영역의 학문으로 분류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 1. 장기에 대한 관점 차이

전통수의학에서 장기에 대한 부분을 장상학설臟象學說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기의 명칭은 현대수의학의 해부학적 명칭과 같지만, 생리기능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완전히 같지 않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와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괴리감은 해부학적 구조와 그 생리기능에 대한 전통수의학적 인식론의 차이에서 기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주 오래전 질병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체계가

없었던 시대에서도 장기들에 대한 명칭은 이미 존재했다. 서양의학의 장기개념은 근대적 자연관인 기계론을 중심으로 하여 철저히 '구조-기능'적 시각에서 장기개념을 형성하게 되지만, 자연현상을 음양오행의 원리로 해석했던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는 생명현상도 자연현상의 일부로 여겨, 생리병리현상도 역시 음양오행적 사고로 이해를 하고 이를 발전시켜 왔으며, 내부 장기에 대한 인식도 초보상태의 해부학적 관찰 경험(장기의 위치, 색깔, 움직임, 크기 등)을 바탕으로 음양오행학설을 결합시켜 전통의학적인 장기개념이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개념은 장부론臟腑論, 장상학설臟象學說로 발전하게 된다.

전통의학적인 장부臟腑개념은 음양오행陰陽五行이라는 관점으로 인체를 재구성한 개념이고, 서양의학의 장기臟器개념은 기계론을 중심으로 한 '구조-기능'적 시각으로 인체를 재구성한 개념이다. 따라서 동서양의 장부臟腑나 장기臟器 개념의 형성은 독특한 시각으로 인체를 재구성한 질병인식체계로서, 인식론적 맥락에서 볼 때 각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통수의학에서도 음양오행학설을 바탕으로 하여 생리기능을 인식하는 특징이 있는데, 생리기능을 유지하는 중심 기관을 해부조직학적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행학설에 근거하여 간, 심, 비, 폐, 신 다섯 장기(오장)를 핵심기관으로 파악하였고, 오장을 제외한 장기와 기관은 오장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관성을 따져 각각 오장과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다.

표1. 오행에 따른 분류표

생체	오행五行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오장五臟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
	육부六腑	담膽	소장小腸	위胃	대장大腸	방광膀胱
	관구官竅	목目	설舌	구口	비鼻	이耳
	형체形體	근筋	맥脈	기육肌肉	피모皮毛	골骨
	정지情志	노怒	희喜	사思	비悲	공恐
	오정五精	혼魂	신神	의意	백魄	지志
오액五液	루淚	한汗	연涎	체涕	타唾	

해설 :

- 관구 - 안면부에 있는 기관.
- 근筋 - 힘줄이나 인대.
- 맥脈 - 혈관과 유사한 개념.
- 기육肌肉 - 살.
- 피모皮毛 - 피부와 털.

장상학설의 형성과 분류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바탕이 되었는데, 첫째는 고대의 해부학 지식으로 장상학설의 기초가 되었으며, 둘째는 장기적인 생리병리 현상에 대한 고찰로, 예를 들면 피부에 찬 기운을 받아 감기에 걸리는데,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며, 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피모와 코, 폐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는 반복되는 의료행위의 축적이다. 병리현상과 치료효과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어떤 생리기능에 대해 분석하고 반증해낸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안과 질환을 간과 관련지어 치료를 하여 효과를 보게 되어서, 간과 눈의 생리병리적 연관성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일련의 신腎을 보하는 약을 복용한 후에 골절 유합이 빨라진 것을 두고 신腎의 정기가 골격생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 후에, 신주골腎主骨이라는 관계를 만들어내게 된다.

표1에서 보면 장기와 조직, 기관뿐만 아니라 정신활동과 정서반응까지도 오장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였다. 그래서 한의학의 한방생리학에서는 간기능계, 심기능계, 비기능계, 폐기능계, 신기능계로 나누어 생리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장기 자체의 생리기능도 중요하지만, 전체 생명현상 속에서 해당 장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다른 장기 및 조직기관과의 관련성도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진단과 치료에도 일관되게 응용되므로, 오행학설에 따른 오장 중심의 생리기능 인식은 장상학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전통수의학의 장기 이론 - 장상학설臟象學說

장상臟象의 장臟은 체내의 장기를 가리키고, 상象은 겉으로

드러난 생리병리적인 현상을 말한다. 장상학설은 생리병리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장부의 생리기능과 병리변화 및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한 학설이다.

장상학설의 대상은 장부인데, 장부는 장기를 말한다. 장부의 생리기능적인 특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장臟, 부腑, 기항지부奇恒之腑이다.

표2. 장부의 분류

명칭	내용	참고
장臟	심, 폐, 비, 간, 신	장기 명칭에서 '장'이라는 글자를 빼고 부른다. 심장이라 하지 않고 그냥 '심'
부腑	담, 위, 소장, 대장, 방광, 삼초三焦	삼초는 서양의학에 없는 개념
기항지부奇恒之腑	뇌腦, 수髓, 골骨, 맥脈, 담膽, 여자포女子包	여자포는 자궁에 해당.

한자의 의미로 접근해보면, 장臟은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온 것이고, 부腑는 창고라는 의미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장은 감추어두고 저장한다는 의미, 부는 어떤 물건이 들어왔다가 필요에 따라 다시 내보내는 의미이다. 장과 부가 모두 물건을 저장하지만 장기적인 보관과 저장을 하는 것이 장이고, 단기적인 저장을 하면서 들고 나가는 변화가 많은 것이 부인 것이다. 기항지부는 장과 부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기를 말한다. 음양이라는 기준으로 장과 부를 나눈다면, 변화와 운동성이 높은 부腑가 양이 되고, 저장하는 기능이 특징인 장臟은 음이 되는 것이다.

오장의 공통된 생리적인 특징은 정기를 만들고 저장하는 하는 것에 관여하고, 육부의 공통된 생리적인 특징은 음식물을 받아들여 변화시키는 데에 관여하는 것이다. 기항지부의 형태와 생리기능은 육부와 다른데, 음식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밀폐된 조직이지만, 또한 오장과 유사하게 정기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항지부라고 한 것이다.

장상학설의 특징은 오장을 중심으로 한 유기체라는 것이다. 장부를 음양으로 나누어 장은 음이 되고 부는 양이 되는데, 음과 양의 장부가 표리관계가 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게 된다. 표리관계란 기능적 연관성이 특별히 높은 관계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로 심과 소장, 폐와 대장, 비와 위, 간과 담, 신과 방광 그리고 심포와 삼초가 서로 표리 관계가 된다. 표리 관계가 되는 근거는 두 장기간의 경락을 통한 연관성과 생리기능상 밀접한 연관성이다.

오장은 각각 기능이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나 특정부위가 존재하는데, 장상학설의 이론에 따르면 심의 상태는 얼굴에 나타나고, 혈액과 혀에서 기능상태를 살필 수가 있으며, 폐의 상태는 피모(피부와 털)에 나타나고, 피부와 코에서 기능상태를 살필 수가 있으며, 비의 상태는 입술주위에 나타나고, 살과 입에서 기능상태를 살필 수가 있으며, 간의 상태는 손발톱에 나타나고 근(인대)과 눈에서 기능상태를 살필 수가 있으며, 신의 상태는 머리카락에 나타나고, 뼈와 귀, 이음二陰(배뇨기관과 항문)에서 기능상태를 살필 수가 있다.

오장의 생리기능과 정신상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신과 정서 및 의식사유활동은 대뇌의 기능이지만 장상학설에서는 오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오장의 생리기능이 전체 생리활동을 통솔하게 되기에 대뇌 생리기능의 정상상태는 오장 생리기능간의 협조와 균형을 통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오장의 생리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대뇌의 정신사유활동 및 의식, 정서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반대로 대뇌의 이상은 오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장의 생리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소문 선명오기편에서 “심장신心藏神, 폐장백肺藏魄, 간장혼肝藏魂, 비장의脾藏意, 신장지腎藏志”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대뇌 생리기능을 몰라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신사유활동 및 의식과 정서를 분류하여, 개개 장의 생리기능과의 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오장 생리기능간의 협조와 균형은 생체의 체내환경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동시에 오장과 형체, 기관과의 관계, 오장과 정신 및 정서 활동과의 관계를 통해 생체 내외환경 사이에 연결이 되고, 내외환경사이에 상대적인 협조와 균형상태가 이루어진다.

장상학설의 형성은 일정부분 고대 해부학 지식이 기초가 된 것이지만, 장상학설의 발전에 있어서 “有諸內, 必形諸外(안의 상태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의 관찰 연구방법이 바탕이 되었다. 그러한 관찰분석의 결과 해부학의 장부 범위를 넘어서서 독특한 생리병리의 이론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장상학설에서 말하는 심폐비간신 등의 장부명칭은 현대 해부학의 장기명칭과 같지만, 생리와 병리학적인 의미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장상학설중의 한 장기의 생리기능이 해부생리학에서 말하는 몇 개 장기의 생리기능에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해부생리학에서 말하는 한 장기의 기능이 장상학설상의 몇 장기의 생리기능에 포함되기도한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장상학설중의 장부는 단순히 해부학적 개념이 아

니고 생체의 한 계통의 생리병리학적 개념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3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오장의 기능에 대해 표기를 하였다.

표3. 오장의 기능

분류	기능	참고
심	심주혈맥 心主血脈 심주신지 心主神志	혈액과 혈관을 담당. 정신사유활동(대뇌기능)을 주관.
	폐주기 肺主氣, 폐사호흡 肺司呼吸 폐주선발속강 肺主宣發肅降 폐주치절 肺主治節	호흡을 주관. 기의 발산과 하강을 담당. 호흡의 규칙성을 주관.
오장	비주운화 脾主運化 비주승청 脾主升清 비주통혈 脾主統血	소화기능. 소화흡수를 통해 영양물질을 전달. 혈액순환 보조역할.
	간주소설 肝主疎泄 간장혈 肝藏血	기 순환을 담당. 혈액을 저장.
	신장정 腎藏精 신주수 腎主水 신주납기 腎主納氣	정精을 저장. 체액대사를 주관. 호흡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

\*주주 : 주라는 한자는 주관한다, 조절한다, 담당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전통수의학의 장부이론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대뇌에서 주관하는 정신사유활동과 정서변화를 심心에서 주관한다는 것과, 비脾에 대한 내용이다.

심心이 정신을 주관한다는 심주신지心主神志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다른 의견이 제기된 적이 있어서, 해부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의 기능으로 이해를 해오고 있지만, 근현대에 들어서 ‘뇌주신지’(腦主神志, 뇌가 정신을 주관한다), ‘심뇌공주신지’(心腦共主神志, 심과 뇌가 정신을 주관한다) 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비脾는 서양의학의 비장(spleen)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췌장에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 이외에도, 해부학적 지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인식론적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장상학설의 기본에는 음양오행학적인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전통수의학의 장상학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통수의학과 현대수의학에서 바라보는 장기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내용과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혹시 이러한 내용에 많은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